



빛고을 · 달구벌 "R&D 탄력 받는다"

- ▷ 광주 · 대구, 연구개발 특구 지정 확정
- ▷ 기업지원활성화 · 연구인프라 확충 기대

광주와 대구가 R&D특구 지정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R&D특구 지정은 교육과 연구개발, 기업지원 활성화, 네트워킹 강화로 연결돼 과학기술 업그레이드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광역 경제권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신성장 동력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빛고을, R&D특구로 빛난다

광주 R&D특구는 광산구와 동구 · 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대에 총면적 18.73㎢에 이르는 규모를 자랑한다. 총 면적 가운데 광주가 15.01㎢, 장성이 3.72㎢에 해당한다. 첨단1지구에는 광산업 관련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첨단 3지구에는 한중일 개방형 협력단지, 신동지구와 진곡산단에는 미래성장 집적단지와 미래동력 산업단지가 각각 조성된다.

R&D특구는 지역 주요 육성산업인 광분야, 자동차, 정보가전, 그린에너지, 문화콘텐츠 등에서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게 된다. 정부와 광주시는 R&D특구를 광기반 산업을 주축으로 한 세계적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광주시는 특히 R&D특구를 동북아 최대 한중일 국제협력단지로 집중 육성하고, 특구내 R&D 성과를 배후 산업 단지나 생산시설과 연결시켜 시너지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 광주시는 R&D특구가 창출하게 될 경제적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가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만큼 연간 6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이 특구 내로 유입될 전망이다.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구원, 기업들의 특구 이전이 활발하게 전개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 지역에 입주하는 연구소와 기업에게는 법인세 · 소득세 등 국세가 면제되고 지방세인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등도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경제적 유발효과는 약 15조 341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2만~3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달구벌, IT융복합산업 거점 도약

지식경제부와 대구시는 4월초 대구시 성서 세인트웨스턴 호텔에서 대구를 IT(정보기술) 기반 융복합산업의 세계적인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구연구개발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대구연구개발특구는 대구 달성군과 경북 경산시 일원에 22.25km² 규모로 조성, 스마트 IT기기, 의료용 융복합 기기 및 소재, 그린에너지, 메카트로닉스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육성된다. 또 대구특구는 테크노폴리스지구와 성서 첨단산업지구(성서 3~5차 산업단지), 융합 R&D지구(경북대 및 칠곡 경북대병원), 의료 R&D지구(신서혁신도시), 지식서비스 R&D지구(영남대, 대구대) 등 5개 지구로 이뤄졌다.

정부와 대구시는 1단계로 오는 2015년까지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과 기술사업화 추진 등을 위해 5,024억원을 투입한다. 대구시는 국내외 우수 연구소 유치, 교육·문화·산업융합 등 특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소한 기업 및 연구소에는 세금 감면, 수도료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최중경 장관은 "광주·대구연구개발특구는 지역의 경제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 이라면서 "특구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벤처정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